

□□□

□□□□□□ □□□□ □□

□ □ □, □□□□□□□□ □□□ □□□ **2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2018**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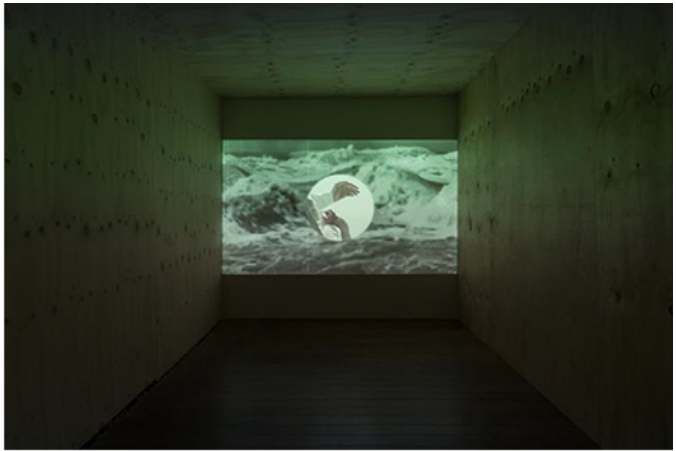
<석력>\_기록영상\_단체널\_1분 50초\_2016

#  
05  
A  
Q.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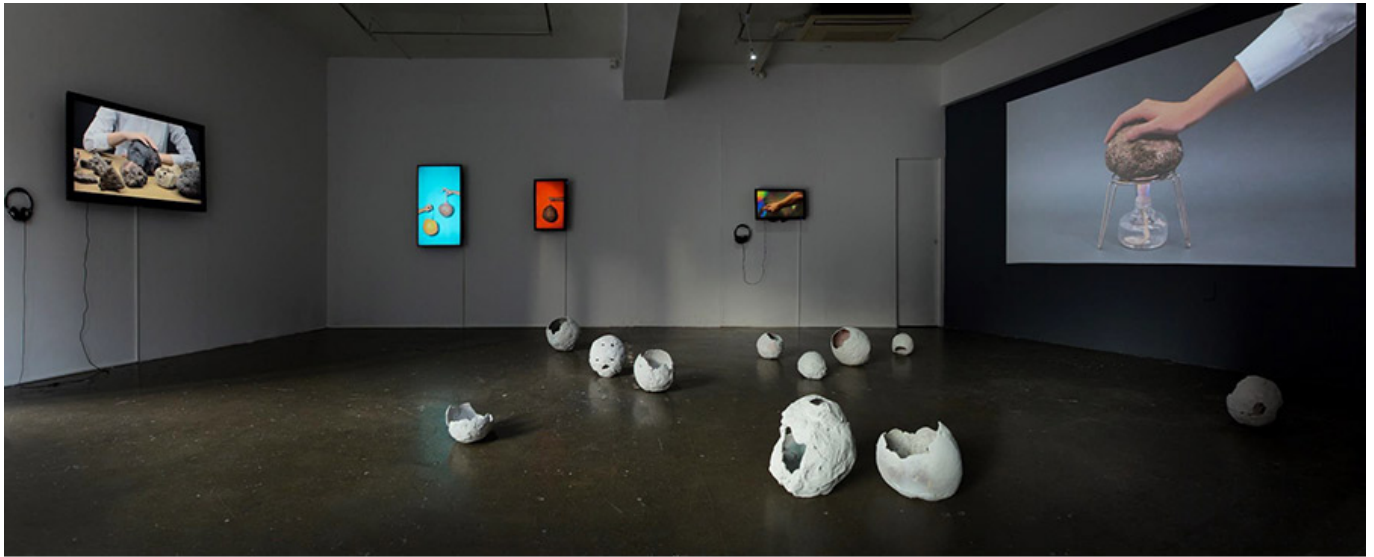
□  
□□  
□.  
□□  
20  
16  
□  
□□  
□□  
□□  
□□  
□□  
□  
20  
17  
□□  
□  
□,  
□□,  
□,  
□,  
□□  
□  
□□  
□□  
□  
□□  
□□  
□  
□□  
□□  
□□.  
□□  
□□  
□□  
□□  
□□

00  
00  
'0  
00  
0  
0'  
0  
00  
00  
0  
00  
0  
00  
0  
00  
0  
00  
00  
0.



<대체로 맑음>\_단체널\_7분 30초\_2017

0000 00000 0000 000000 00 00, 0000 00 00000 0000 0000. 00 00 0000 0000 00  
0 00000 00000 00 00000 00000 00 0000 0000 0000 00000 00000. 00 00 00 00  
0 00000 0000 0000 00 0 00 0000 00 00 00000. 0000 0 00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0, 00 00 0000 0000 00000 00, 00, 0 00 00000 0000 00000 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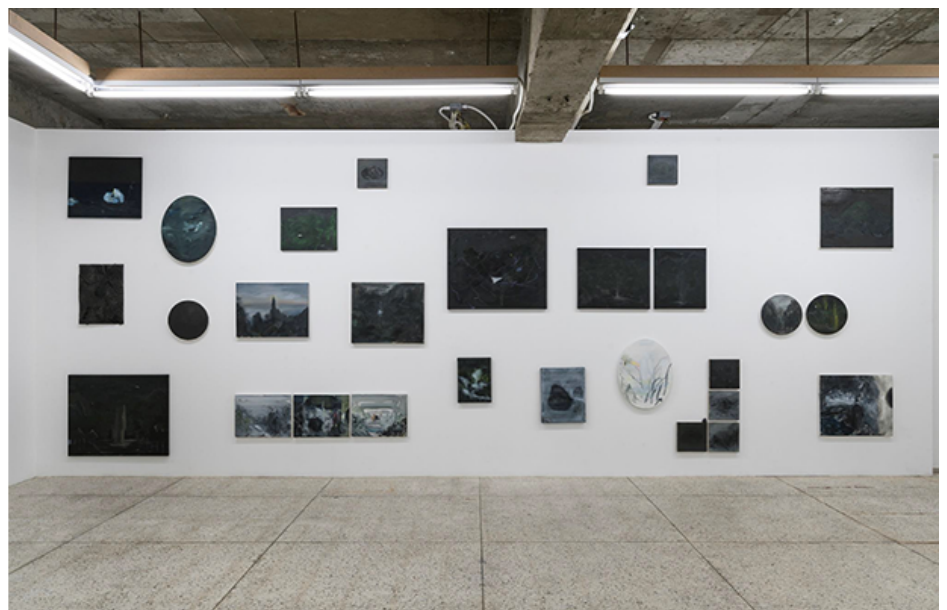
<오늘은편서풍이불고개이겠다> 전시전경\_스페이스 오뉴월(서울)\_2016

Q.

A.   <



<물생활\_레이아웃 은신처>  
\_흙합매체\_가변크기\_2017



<밀\_오메가, 밤, 산, 물 소리, 빗, 촛대, 물, 돌, 맑음>  
\_캔버스에 유채\_가변크기\_2015\_2017

돌과 요정 3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  
임영수

ROCK AND FAIRY 3  
LOOK, HERE BEGINS THE OMEGA  
IN YOUNG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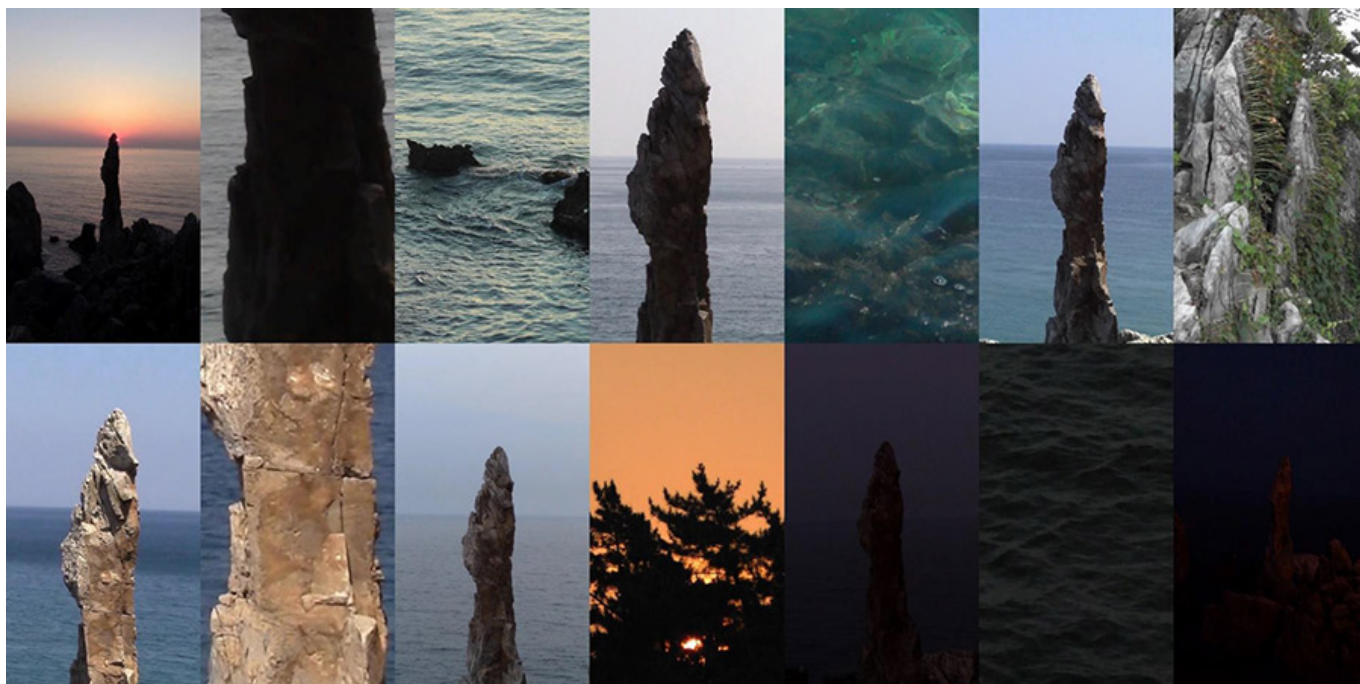


돌과 요정 3 ○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 ○ 임영수 ○ ROCK AND FAIRY 3 ○ LOOK, HERE BEGINS THE OMEGA ○ IN YOUNG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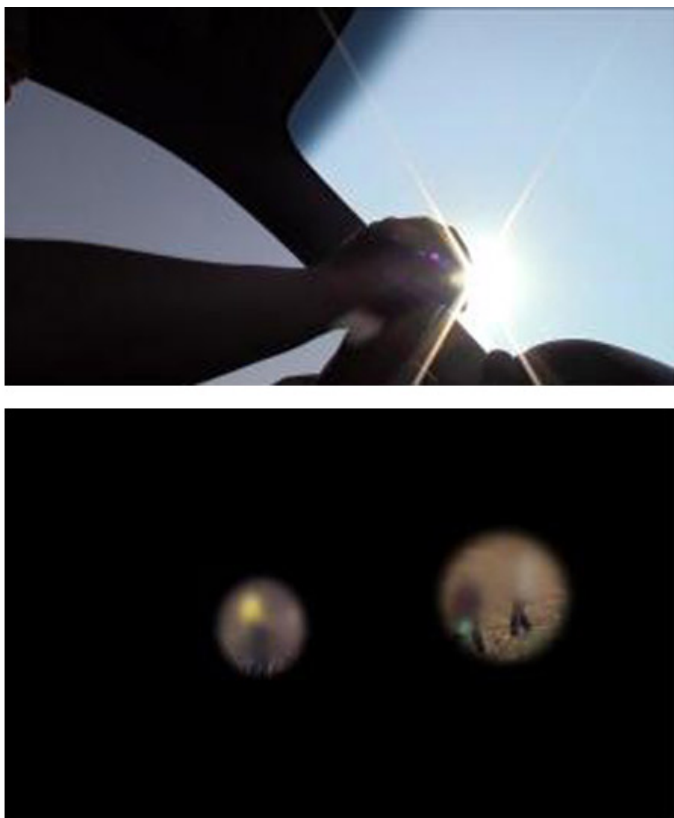
**책 『돌과 요정 3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 미디어버스\_2018**

이 책은 1999년 10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00년 10월 10일' 전시의 일환으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돌과 요정 3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라는 제목을 가진 두 개의 원형 미디어 아트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의 작품은 '돌과 요정 3'으로, 어두운 색조와 질감 있는 붓칠로 이루어진 풍경이다. 오른쪽의 작품은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로, 어두운 배경에 푸른색과 노란색의 빛나는 선과 형태가 나타난다. 이 두 작품은 각각 '돌과 요정 3'과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라는 제목을 가진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이 책은 1999년 10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00년 10월 10일' 전시의 일환으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돌과 요정 3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라는 제목을 가진 두 개의 원형 미디어 아트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의 작품은 '돌과 요정 3'으로, 어두운 색조와 질감 있는 붓칠로 이루어진 풍경이다. 오른쪽의 작품은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로, 어두운 배경에 푸른색과 노란색의 빛나는 선과 형태가 나타난다. 이 두 작품은 각각 '돌과 요정 3'과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라는 제목을 가진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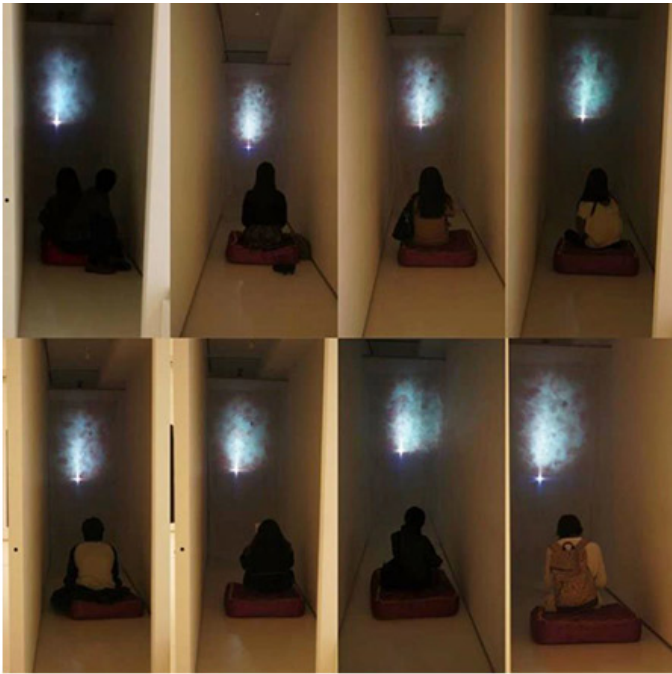
<애동 愛東>\_기록영상(2015.08.05 06시-21시 동해시 추암촛대바위)\_36분 17초\_2015

'뽕 뽕' 뽕뽕 뽕뽕 뽕뽕, 뽕 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돌과 요정>\_기록영상\_45분 30초\_2016

이 작품은 관객이 공간을 걸어다니며 경험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이다. 관객은 방 안의 어두운 공간에서 붉은색의 방석을 깔고 앉는다. 방석 위에는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으며, 벽면에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다. 프로젝터는 관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벽면에 빛나는 영롱한 소리를 그린다.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나는 소리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진다. 관객은 이 빛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며, 빛나는 소리를 따라간다.



〈삼위일체 영롱한 소리를 듣는 방〉  
스피커, 실크 천, 실크방석, 반지,  
프로젝터\_가변크기\_2014  
: 반지가 공중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를 듣는 방

〈삼신뎌〉 전시전경\_레스빠스 71(서울)\_2014

**Q.** 이 작품은 관객이 공간을 걸어다니며 경험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이다. 관객은 방 안의 어두운 공간에서 붉은색의 방석을 깔고 앉는다. 방석 위에는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으며, 벽면에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다. 프로젝터는 관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벽면에 빛나는 영롱한 소리를 그린다.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나는 소리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진다. 관객은 이 빛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며, 빛나는 소리를 따라간다.

**A.** 이 작품은 관객이 공간을 걸어다니며 경험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이다. 관객은 방 안의 어두운 공간에서 붉은색의 방석을 깔고 앉는다. 방석 위에는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으며, 벽면에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다. 프로젝터는 관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벽면에 빛나는 영롱한 소리를 그린다.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나는 소리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진다. 관객은 이 빛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며, 빛나는 소리를 따라간다.







<풍력>\_기록영상\_단체널\_3분 28초(loop)\_2016

Q. □□ □□□ □□ □□, □□□?

A.



□□□□ □□□\_□□▶